

GS건설·자이S&D, 기존 공기청정기 한계 극복

24시간 창문 닫아도 20분이면 실내정화 썩~ ‘시스클라인’

〈불박이형 공기청정시스템〉

26일 ‘시스클라인 쇼룸’ 오픈

국내 첫 통합공기청정 시스템 천장에 설치해 공간제약 없애 향후 IoT 시스템 형식으로 개발

GS건설이 환기하지 않아도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불박이 형태 공기청정 시스템을 내놨다.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S&D와 오는 26일 국내 최초 신개념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Sys Clein)’의 쇼룸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 건축 주택부문 우무현 사장은 “최근 실내공기의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어 GS건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스클라인을 선보 이게 됐다”며 “미세먼지가 많을 때 문을 닫아도 실내의 청량한 공기가 자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스클라인은 GS건설과 자이S&D가 공동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여지



‘시스클라인’ 쇼룸.



‘시스클라인’ 설치 이미지.

/GS건설

는 신개념 통합 공기청정 시스템이다. 이번 쇼룸은 한 번의 시공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될 제품의 특성상 실제 세대 내부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시스클라인의 작동방식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창문을 열지 않으면 외기 환기가 불가한 기존 공기청정기 제품과 전열교환기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한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이다.

기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는 전열교환기 설비를 통해 환기가 이뤄진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내보낸 후 필터를

통해 걸러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 ‘공동주택 환기 설비의무적용’이 법조화되면서 공동주택 내 세대 당 전열교환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 전열 교환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미미하고 환기예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 또 기존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 가동 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GS건설은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 1년

여 간의 시스템 개발, 성능 테스트 과정을 거쳐 24시간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와 청정이 가능한 시스클라인을 개발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열교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연동해 외기 환기 및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적용 세대의 공기청정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했다. GS건설 자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용 84m² 세대 기준, 시스클라인 4대 설치 시 실내 초미세먼지 수치인 210μg/m³가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 ‘보통(16~50μg/m³)’ 수준 내에 해당

하는 35μg/m³까지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이내다.

빌트인(Built-in·불박이) 형식으로 천장에 설치해 공간 제약도 없앴다. 세대 내 설치된 홈네트워크와 연동해 자동운전모드도 가능하다. 외부에서도 모바일 전용 앱으로 원격 가동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며, 향후 홈네트워크를 통한 IoT(사물 인터넷) 시스템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부담도 줄였다.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으로 시간당 최대 24W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적다.

GS건설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24W 기준 24시간에 한 대당 3300원 정도 나올 것”이라며 “거실·주방에 설치하면 120만원대, 3대 설치하면 180만원대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서초구 방배그랑자이를 시작으로 개포그랑자이, 성남고등자이 등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스클라인의 쇼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 3층에 마련돼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증권 디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WM 고객자산 20조 돌파

신한금융투자는 자산관리(WM)그룹의 고객 총자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WM 그룹은 지난 2012년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신한PWM 브랜드로 출범한 금융복합모델이다. WM그룹의 고객 총자산은 27개 PWM센터가 모두 개설된 지난 2015년 말 15조2000억원에서 이달 현재 20조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다. /김유진 기자

키움증권

‘마켓N이슈’ 日 9.5만 이용

키움증권은 투자정보 ‘마켓N이슈’ 하루 순 이용자가 9만 5000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켓N이슈는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시황·종목, 글로벌 리포트를 기본으로 펀드정보와 채널K 동영상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매일 아침 키움데일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비대면 주식계좌 이벤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네이버시리즈 앱과 제휴해 오는 30일까지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및 거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비대면 주식계좌를 생애 최초로 개설한 고객들에게 네이버시리즈 앱에서 만화, 소설 등 콘텐츠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네이버쿠기까지 준다. /손엄지 기자

KB증권 ‘랩어카운트’ 5.3조… 성향따라 서비스

2년만에 잔고 165% 급격히 증가
1개 계좌서 다양한 자산 편입·운용

KB증권 리테일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잔고가 5조3000억원(9일 기준)을 돌파했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리테일 잔고는 KB증권 랩 어카운트 총 잔고(6조 1000억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본사 훌세일(Wholesale) 조직이 아닌 지점 영업조직을 통해 유치된 소액 다계좌 자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 7월 자산관리서비스 강

화 정책의 일환으로 ‘KB 애이블 어카운트(able Account)’를 출시한 이후 리테일 랩어카운트 잔고는 급격히 성장했다. 2017년 3월 기준 2조원 수준이었던 잔고가 2년여 만에 165% 증가했다.

‘KB able Account’는 하나의 계좌 내에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 운용, 관리하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UMA·Unified Managed Account)이다. 총 16개의 우수한 포트폴리오, 업계 최저 수준의 가입금액, 차별화된 운용·서비스 역량을 내세워 최근 잔고는 2조2000억 원을 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B증권관계자는 “시장상황과 고객 성향에 따라 알맞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표전환형, 성과보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인 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높은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출시한 ‘KB able 맞춤형’ 서비스는 목표 수익률 달성 시 안전자산으로 전환 운용되는 목표전환형 서비스로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또 배당 관련 종목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KB able 배당랩’은 기본형과 함께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운용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가 결정되는 성과보수형 서비스로도 제공 중이다.

KB증권은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

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랩 어카운트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채권 등 전통 투자 대상이 아닌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등 다양한 글로벌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유성 KB증권 랩(Wrap)운용부장은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표 서비스인 ‘KB able Account’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 리테일 랩어카운트 잔고 증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공간활용·채광·통풍… ‘복층형’ 오피스텔 뜯다

‘오렌지카운티 남산’ 144실 분양

복층형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8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을 진행한 오피스텔 79곳 중 26곳에서 복층형 설계를 적용했다. 전체 오피스텔 3곳 중 1곳이 복층형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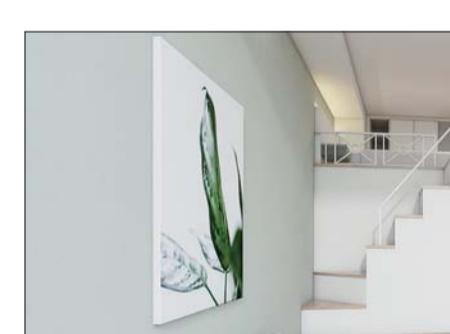
복층형 오피스텔은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두 배 가까이 높고, 채광·통풍도 우수해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란 평가다. 아울러 최근 소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 생활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풀이된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복층형이 각광받고 있다. 단층형 대비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올해 들어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보건설은 대구 ‘동성로 하우스디 어반’,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대우산업개발은 부산 수영 민락동 일대에 ‘이안 테라디움 광안’ 오피스텔을 공급했다.

서울 중구 도심 한복판에 분양하는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인 ‘오렌지카운티 남산’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오피스텔 중 하나다. 144실 전 세대가 희소성과 수익성 높은 복층형 구조인데다 남산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프리미엄 조망권 등을 갖췄다.

오렌지카운티 남산은 지하철 5호선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오렌지카운티 남산’ 내부 모습.

/오렌지엔지니어링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3호선 동대입구역, 4호선 종무로역, 2호선 을지로4가역 등 4개 노선이 모두 지나는 퀸드러블 역세권이다.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동국대가 걸어서 4분 거리로 가깝다. 시청, 광화문, 압구정 등이 5km 이내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제일병원, 중구청, CJ푸드월드,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 패션거리 등이 가깝다. (문의 02-2276-1112) /채신화 기자

오렌지카운티 남산은 ▲스마트 IoT(사물인터넷)시스템 ▲지열냉난방시스템 ▲풀퍼니시드 시스템(냉장고, 세탁기, 천장형에어컨, 쿡탑, 비데 등 포함) 등 3대 특화시스템을 갖췄다. 중도금 무이자 60%로 투자 부담도 줄였다.

단지는 총 144실 13층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13층까지는 복층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문의 02-2276-1112) /채신화 기자